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가이드라인

- 1 교과 과목 내 성평등 교육 신설
- 2 교사 양성과정 및 연수 시 성평등 교육 의무화
- 3 여학생 바지 선택권 보장
- 4 성차별적인 복장규정 개선
- 5 성별 구분 없는 동등한 체육교육 실시
- 6 현행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

성평등에 동참하는 교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 1 '여자는, 남자는'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기
- 2 학생들에게 칭찬을 포함한 외모평가하지 않기
- 3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한 기회 부여하기
- 4 학생들의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존중하기

한국여성민우회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향해
각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성평등한 노동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활동
여성이 자신의 몸과 건강의 주체가 되는 활동
성인지적 관점의 미디어감시 활동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기획하는 활동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반성폭력 활동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사회개혁 활동
풀뿌리로부터의 변화를 만드는 지역여성운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
민우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 및 회원가입
02-737-5763 www.womenlink.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813-25-0011-869 예금주 한국여성민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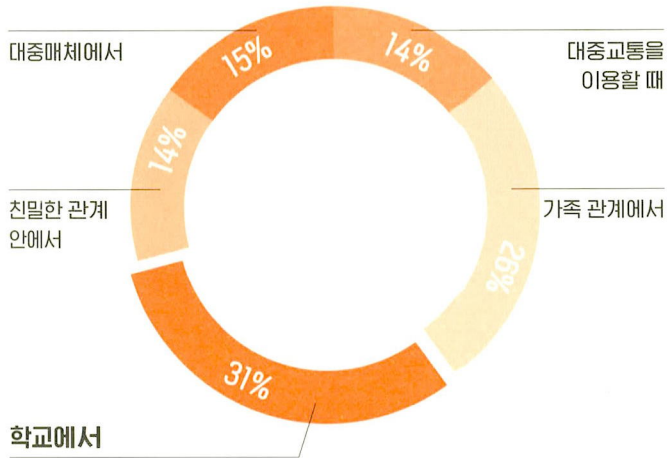
3천원 문자 후원 #2540-3838

#이게_학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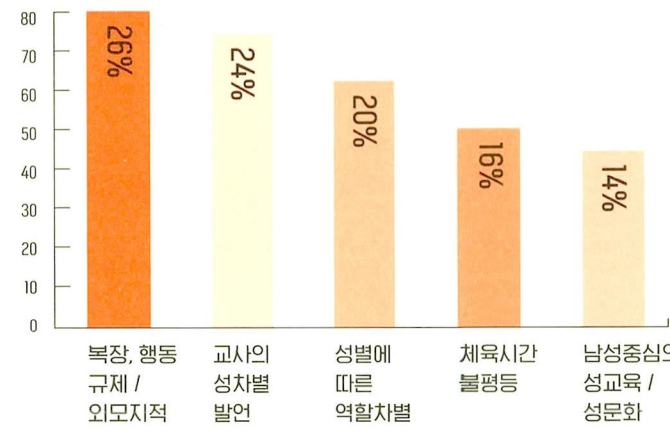
#이게_학교지!

‘2017 성차별 보고서’에 응답한 10대 여성 235명에 따르면,

10대, 성차별에 대해 말하다
어디서 성차별을 겪었나요?



10대, 학교에 대해 말하다
학교에서 어떤 성차별을 겪었나요?



왜 여자 교복은 치마 밖에 없죠?

- 여자는 바지교복을 못 입게 함. 바지가 왜 남자 것이지?
- 체육복 반바지(짧은 것) 남자는 되고 여자는 입지 말라고 하는 것. 여전히 교복 기본세트가 여자=치마인 것.
- 여자는 교복바지를 입으려할 때 선생님의 허락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 다리홍터]
- 교복을 바지로 선택했더니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혹시 정체성 고민이 있냐는 질문을 했다.

2017 성차별 설문 사례

학교는 10대 여성들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과거에 비해 여학생의 바지 착용이 가능한 학교는 증가했지만, 사유를 제출하고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전절차가 있거나, 절차가 없더라도 교사에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여학생의 바지 착용은 여전히 예외적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10대 여성들은 질문합니다. ‘왜 바지는 남자의 것이죠? 그건 누가 정한 걸까요?’

선생님 그건, 성차별입니다

- ‘여자는 시집만 잘 가서 애만 잘 기르면 되잖아’ 라는 발언을 들음.
- 자동차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에게 여자가 어떻게 자동차를 아냐고 물었다.
- 선생님이 쇼핑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라면서 신봉불량자는 여자가 대부분이라는 말을 함.
- “너네는 여자반인데...”, “여자반이니까...”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자반이 왜 이렇게 시끄럽니?”

2017 성차별 설문 사례

학교는 지식전달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평등, 민주화, 인권, 다양성의 가치를 습득하는 공교육 기관입니다. 하지만 10대들의 경험에 따르면 학교가 오히려 여성의 몸, 외모, 성역할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반이~’ 라는 말을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부 교사들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10대들의 문제의식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

-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여자는 피구, 남자는 축구를 하라고 하셨다. 여자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여자애들은 축구 못하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해? 너네 때문에 남자들이 지루해하잖아.”라며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다.
- 체육시간에 남자애들은 축구를, 여자애들은 피구를 시켰다. 운동장은 늘 남자 아이들의 것이었고, 피구는 늘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만 진행됐다.

2017 성차별 설문 사례

10대 여성들에게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와 같은 노골적이고 가시적인 차별만큼 성별화 역시 차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남학생 위주의 운동장 할애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성별화가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이기는 것이 이상하거나 남성이 여성에게 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워본다면 어떨까요?

성교육을 받을 때 항상 여자가 조심하라고 했다

- 여자가기 때문에 남학생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짧은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 성교육을 특히 여자아이들만 시킨다.
- 남자아이들의 폭력적 행동을 ‘관심’으로 포장함.
- 낙태 교육 시 잘못된 정보를 가르치며 여자의 잘못으로만 몰아간다.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딸아이가 옷차림이 여성이 성추행 당하는 요인이라는 유인물을 받아 옴.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취지와는 달리 많은 학교들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가 조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은 성폭력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안합니다

여학생 바지 착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내가 학생이라면
- 소속 교육청에 건의하기

여학생 바지 착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학교는
- 교복 디자인 통일하기
-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복장규정 점검하기
- 바지 선택 시 불필요한 절차 폐지하기

학교는

-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하기
- 교과과목에 성평등 교육을 신설하여 학생들 스스로 성평등한 문화 만들기과 실천이 가능한 토대 제공하기

내가 교사라면

- 성별에 따른 신체적 한계를 정하지 않고, 동등한 체육 교육 진행하기

내가 교사라면

- 성폭력은 우발적인 성욕이 아닌 성별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기
- 성폭력 사건 해결을 가로막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단어(지나친 노출, 성욕, 조심, 술김에, 저항 등) 쓰지 않기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